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글로벌 문화 선도국'으로 함께 도약

- 5. 29. 한국 문체부와 아랍에미리트 문화부 '문화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
- 올해 11월 '코리아시즌' 개최, 두바이 '코리아 360' 개소 등 문화교류 확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와 아랍에미리트 문화부(장관 살렘 빈 칼리드 알 카시미)는 5월 29일(수), '문화 분야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5. 29. 한국-아랍에미리트 정상회담 계기 양국 문화 협력 확대

이번 양해각서는 5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빈 방한한 아랍에미리트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문화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것이다.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순방 이후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문체부는 ▲코리아 페스티벌 개최('23년 11월, 아부다비), ▲상대국 국제도서전 주빈국 참가('23년 6월 서울, '23년 11월 샤르자), ▲거점 세종학당 신규 개소('24년 4월, 샤르자), ▲중동 최대 국제관광박람회 '두바이 아라비안 트래블 마켓(Arabian Travle Market)' 참가('24년 5월) 등을 추진했다.

올해 11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한국문화 종합축제 '코리아시즌' 개최

양국은 이제 양해각서를 토대로 문화교류를 더욱 확대한다. 문체부는 올해 11월에 한국문화 종합축제인 '코리아시즌'을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개최한다. 이번 '코리아시즌'은 아부다비 음악예술 재단(Abu Dhabi Music & Arts Foundation)과 아부다비 문화재단(Abu Dhabi Cultural

Foundation), 루브르 아부다비, 아부다비 뉴욕대학교 등과 협력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대무용 공연(국립현대무용단), 어린이 대상 전시회(국립민속박물관)를 비롯해 다채로운 한국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연과 전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미용(뷰티), 식품 등 연관 소비재 상품과 한류 콘텐츠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코리아 360’ 전시관도 두바이에서 12월에 개소한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이어 두 번째로 조성되는 두바이 ‘코리아 360’은 아랍에미리트에서 한류 확산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밖에도 ‘케이-관광 로드쇼(’24년 11월, 두바이)’ 개최 등을 통해 문화 전반적으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문화교류 확대가 양국이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다양한 문화 협력이 대한민국과 아랍에미리트가 함께 ‘글로벌 문화 선도국’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정책과	책임자	과장	권도연 (044-203-3311)
		담당자	사무관	김영조 (044-203-3312)

